

2 (윤리와 사상)

사회탐구 영역

6. 다음을 주장한 중세 서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<보기>에서 고른 것은?

신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이성을 통해 똑똑히 보인다. 하지만 이성만으로는 신의 본질을 파악하기에 충분하지 않으므로, 이성은 반드시 신의 은총을 통하여 보충되어야만 한다. 우리는 신의 본질에 대한 직관을 통해 완전한 행복에 도달할 수 있다.

< 보기 >

- ㄱ. 이성적인 논증을 통한 신의 존재 증명은 불가능하다.
- ㄴ. 신앙과 이성은 서로 모순되지 않으며 상호 보완적이다.
- ㄷ. 인간의 완전한 행복은 내세가 아닌 현세에서 실현된다.
- ㄹ. 인간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신의 은총이 반드시 필요하다.

- ① ㄱ, ㄴ ② ㄱ, ㄷ ③ ㄴ, ㄷ ④ ㄴ, ㄹ ⑤ ㄷ, ㄹ

7. 다음을 주장한 사회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? [3점]

- 폭력에는 직접적 폭력과 간접적 폭력이 있으며, 이러한 폭력의 이면에 문화적 폭력이 있다. 폭력은 주로 문화적 폭력으로부터 구조적 폭력을 경유하여 직접적 폭력으로 번진다.
- 진정한 평화를 위해서는 직접적 폭력이 제거된 소극적 평화를 넘어 구조적·문화적 폭력까지 제거된 적극적 평화가 실현되도록 노력해야 한다.

- ① 폭력의 예방이 아닌 폭력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.
- ② 종교와 교육 내부에 폭력이 존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.
- ③ 사회 제도나 관습에 따른 억압도 폭력으로 간주될 수 있다.
- ④ 물리적 폭력의 제거만으로도 적극적 평화를 달성할 수 있다.
- ⑤ 평화의 실현을 위한 폭력 사용은 도덕적으로 허용되어야 한다.

8. 중국 유교 사상가 갑,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<보기>에서 고른 것은? [3점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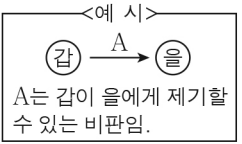
갑: 앎[知]과 행함[行]은 서로 의존한다. 마치 눈은 발이 없으면 나다닐 수 없고 발은 눈이 없으면 볼 수 없는 것과 같다. 선후를 논한다면 앎이 먼저이고, 경중을 논한다면 행함이 중요하다.
 을: 앎은 행함의 시작이고 행함은 앎의 완성이다. 무릇 사람은 반드시 먹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뒤에야 밥인 줄 안다. 먹고자 하는 마음이 바로 의념[意]이며 또한 행함의 시작이다.

< 보기 >

- ㄱ. 갑: 성인(聖人)이 되기 위해 행함보다 앎을 중시해야 한다.
- ㄴ. 을: 그릇된 의념을 바로잡아 마음의 양지를 실현해야 한다.
- ㄷ. 을: 도덕적 앎과 행함 사이에 선후가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.
- ㄹ. 갑과 을: 도덕적 앎과 행함이 일치되는 삶을 추구해야 한다.

- ① ㄱ, ㄴ ② ㄱ, ㄷ ③ ㄴ, ㄷ ④ ㄴ, ㄹ ⑤ ㄷ, ㄹ

9. (가)의 한국 유교 사상가 갑, 을의 입장에서 서로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을 (나) 그림으로 표현할 때, A, B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옳은 것은? [3점]

(가)	<p>갑: 사단(四端)은 이(理)가 발(發)하매 기(氣)가 따르는 것이요, 칠정(七情)은 기가 발하매 이가 기를 타는 것이다. 사단의 발현은 순리(純理)이므로 선하지 않음이 없고, 칠정의 발현은 기를 겸했으므로 선악이 있다.</p> <p>을: 사단은 선한 정(情)을 달리 이르는 것이며, 칠정을 말하면 사단은 그 가운데 이미 있다. 정이 선한 것은 맑고 밝은 기를 타고 천리(天理)를 따라 곧바로 나와서 그 적절함을 잃지 않았기 때문이다.</p>
(나)	<div style="display: flex; align-items: center; justify-content: center;">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border-radius: 50%; padding: 10px; margin-right: 20px;">갑</div> <div style="text-align: center;"> <p>→ A</p> <p>← B</p> </div>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border-radius: 50%; padding: 10px; margin-left: 20px;">을</div> </div> <div style="margin-top: 10px;"> <p><범례> →: 비판의 방향 A, B: 비판의 내용</p> <p><예시> </p> </div>

- ① A: 발하는 것은 오직 기쁨임을 간과한다.
- ② A: 사단은 순선무악한 감정임을 간과한다.
- ③ A: 사단과 칠정의 연원이 각기 다름을 간과한다.
- ④ B: 기는 이와 달리 형체가 있음[有形]을 간과한다.
- ⑤ B: 이와 기는 현실에서 서로 분리되지 않음을 간과한다.

10. 고대 서양 사상가 갑,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<보기>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?

갑: 인간은 모든 것의 척도이다. 존재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이 존재한다는 척도이며, 존재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척도이다.
 을: 자신이 알지도 못하는 것을 안다고 생각하는 것이 가장 비난 받아야 할 무지이다. 지혜와 진리에 관심을 가지고 자신의 영혼을 선하게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.

< 보기 >

- ㄱ. 갑: 도덕 판단의 기준은 개인마다 다를 수 있다.
- ㄴ. 을: 무지의 자각을 바탕으로 참된 앎을 추구해야 한다.
- ㄷ. 갑과 을: 경험이 아닌 이성적 숙고를 통해 진리를 추구해야 한다.

- ① ㄱ ② ㄷ ③ ㄱ, ㄴ ④ ㄴ, ㄷ ⑤ ㄱ, ㄴ, ㄷ

11. 고대 동양 사상가 갑,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?

갑: 인(仁)을 끊고 의(義)를 버리면 백성은 효성과 자애를 회복하게 되며, 기교를 끊고 이익을 버리면 도적이 사라진다. 소박함을 견지하여 사사로움과 욕심을 줄여야 한다.
 을: 하루라도 자신의 이기심을 극복하고 예(禮)로 돌아가면, 세상 사람들이 모두 인으로 귀의할 것이다. 인하게 되는 것은 자신에게 달린 것이지 다른 사람에게 달린 것이 아니다.

- ① 갑: 인위에 얽매이지 않고 자연의 덕을 따라야 한다.
- ② 갑: 타고난 본성을 변화시켜 소박한 삶을 살아야 한다.
- ③ 을: 예를 버리고 시비(是非)의 분별에서 벗어나야 한다.
- ④ 을: 엄격한 법령과 형벌을 다스림의 근본으로 삼아야 한다.
- ⑤ 갑과 을: 인의의 규범을 확립하여 이상 사회를 실현해야 한다.

12. 근대 서양 사상가 갑, 을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? [3점]

갑: 덕과 악덕은 이성만으로는 발견될 수 없고, 덕과 악덕이 유발하는 인상이나 감정을 통해서만 그 차이를 확정할 수 있다. 도덕성은 판단된다기보다는 느껴지는 것이다.
 을: 삶에서 무엇보다 유익한 것은 가능한 한 이성을 완전하게 하는 것이다. 이성을 완전하게 하는 것은 신과 신의 본성의 필연성에서 생기는 활동을 파악하는 것이다.

- ① 갑: 감정은 도덕적 실천의 직접적인 동기가 될 수 있다.
- ② 갑: 이성은 도덕적 행위를 실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.
- ③ 을: 자연의 모든 일은 원인과 결과의 관계로 연결되어 있다.
- ④ 을: 이성을 통해 자연의 질서를 인식할 때 행복을 누릴 수 있다.
- ⑤ 갑과 을: 도덕적 선악은 감정이 아닌 이성에 의해 판단될 수 있다.

13. 다음을 주장한 한국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<보기>에서 고른 것은?

얼어붙은 연못이 모두 물이라는 사실을 알지만, 햇볕의 따뜻한 기운을 받아야 실제로 얼음을 녹여 물로 만들 수 있다. 그러므로 깨달음에 의지해 수양하고 점차 익혀서 공(功)을 이루어야 한다. 돈오(頓悟)와 점수(漸修)의 이치는 마치 수레의 두 바퀴와 같아 하나만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.

— < 보 기 > —

ㄱ. 자신의 마음을 직관하여 단박에 진리를 깨쳐야 한다.
 ㄴ. 모든 중생은 돈오 이후에 더 이상의 수행이 불필요하다.
 ㄷ. 정(定)과 혜(慧)를 함께 닦아 습기(習氣)를 제거해야 한다.
 ㄹ. 자신이 부처임을 자각하려면 경전 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.

- ① ㄱ, ㄴ ② ㄱ, ㄷ ③ ㄴ, ㄷ ④ ㄴ, ㄹ ⑤ ㄷ, ㄹ

14. (가)의 근대 서양 사상가 갑, 을의 입장을 (나) 그림으로 탐구하고자 할 때, A~C에 들어갈 옳은 질문만을 <보기>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? [3점]

(가)	<p>갑: 실천 이성의 원리에 따르면, 우리는 항상 자신의 행위 준칙이 보편적인 법칙이 될 것을 의욕할 수 있는 방식으로 행위해야 한다.</p> <p>을: 최대 행복의 원리에 따르면, 우리는 양과 질이라는 두 측면 모두에서 가능한 한 고통을 회피하고, 쾌락을 충분히 향유하는 방식으로 행위해야 한다.</p>
(나)	

— < 보 기 > —

ㄱ. A: 행위의 옳고 그름은 행위의 동기에 의해 판단되는가?
 ㄴ. A: 행위의 도덕성을 판단하는 보편적 원리가 존재하는가?
 ㄷ. B: 의무로부터 비롯된 행위만이 도덕적인 가치를 갖는가?
 ㄹ. C: 쾌락의 질을 고려하는 것은 최대 행복의 원리에 어긋나는가?

- ① ㄱ, ㄴ ② ㄱ, ㄷ ③ ㄷ, ㄹ
- ④ ㄱ, ㄴ, ㄹ ⑤ ㄴ, ㄷ, ㄹ

15. 사회사상가 갑,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? [3점]

갑: 시장 경제 사회의 두드러진 결함인 실업과 불황의 원인은 유효 수요의 부족이다.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는 소비 성향에 대해 지도적인 영향력을 행사해야 한다. 광범위한 투자의 사회화만이 완전 고용에 가까운 상태를 확보할 수 있다.
 을: 시장의 자생적 질서를 계획이나 정책과 같은 인위적 질서로 바꾸려는 것은 인간의 치명적 자만이다. 정부의 경제 활동 개입은 가격과 임금 통제 및 독점을 낳아 개인의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교란하고 우리를 노예의 길로 이끈다.

- ① 갑: 실업 문제의 해결은 시장의 원리에 전적으로 맡겨야 한다.
- ② 갑: 모든 생산 수단을 공유하여 경제적 평등을 실현해야 한다.
- ③ 을: 자원 배분의 효율성은 정부의 시장 개입 정도에 비례한다.
- ④ 을: 정부 주도의 계획 경제를 통해 시장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.
- ⑤ 갑과 을: 시장에서 경제 주체들의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어야 한다.

4 (윤리와 사상)

사회탐구 영역

16. (가)의 고대 동양 사상가 갑, 을의 입장을 (나) 그림으로 표현할 때, A ~ C에 해당하는 진술로 옳은 것은? [3점]

(가)	<p>갑: 사람은 나면서부터 인의(仁義)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. 그 선량한 마음을 상실한다면 마치 산림의 나무를 날마다 도끼로 베어낸 것과 같으니 아름답지 못하다. 학문의 길은 상실한 마음을 되찾는 것일 뿐이다.</p> <p>을: 사람은 나면서부터 이욕을 좋아한다. 사람이 이러한 본성을 그대로 따르면 반드시 다투고 분수를 어기게 되어 사회적 혼란으로 귀결된다. 성인(聖人)은 그 다툼을 싫어한 까닭에 예(禮)를 제정해 구분을 지었다.</p>
(나)	

- ① A: 사람이 선하게 되는 것은 인위의 결과이다.
- ② A: 타인을 돕는 행위는 타고난 본성에 어긋난다.
- ③ B: 모든 사람은 동일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다.
- ④ B: 수양을 통해 잃어버린 본래의 마음을 되찾아야 한다.
- ⑤ C: 성인은 하늘이 부여한 예로써 백성을 다스려야 한다.

17. 사회사상가 갑,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?

<p>갑: 국가는 비교적 평화로운 상태인 자연 상태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자연법의 집행권을 공동체에 양도한다는 상호 계약으로 만든 결사체이다.</p> <p>을: 국가는 비참한 전쟁 상태인 자연 상태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 보존을 위해 그들이 지닌 권리를 하나의 합의체에 양도한다는 신약(信約)으로 만든 공통 권력이다.</p>
--

- ① 갑: 국가 권력의 정당성 근거는 시민의 동의에 기초한다.
- ② 갑: 국가는 시민의 재산을 자의적으로 처분할 권력을 지닌다.
- ③ 을: 국가 권력은 시민의 권리 보호를 위해 분할되어야 한다.
- ④ 을: 국가에서는 자연 상태와 마찬가지로 부정의가 존재한다.
- ⑤ 갑과 을: 국가는 인간의 본성에 의해 생겨난 자연의 산물이다.

18. 다음을 주장한 한국 유교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? [3점]

<p>사람은 선을 좋아하고 악을 미워하며 덕(德)을 좋아하고 더러움을 부끄러워하는데 이것이 사람의 성(性)이다. 따라서 성이란 마음이 기호(嗜好)하는 것이다. 기호를 버리고 성을 말하는 것은 공맹의 유학이 아니다.</p>

- ① 측은지심을 인(仁)의 시작[始]으로 보아야 한다.
- ② 이법적 실체인 이(理)를 사람의 성으로 보아야 한다.
- ③ 도덕적 삶을 살기 위해서는 모든 욕구를 억제해야 한다.
- ④ 모든 존재에게 부여된 영지(靈知)의 기호를 확충해야 한다.
- ⑤ 사단(四端)은 성이라고 할 수 없으나 덕이라고 할 수는 있다.

19. 다음을 주장한 고대 동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모든 존재는 저것 아닌 것이 없고 이것 아닌 것이 없다. 저것의 입장에서 보지 못하니 자신이 아는 것만 알 뿐이다. 그래서 저것은 이것에서 나오고, 이것은 저것에서 생긴다고 했다. 저것과 이것이 서로를 생겨나게 한다. 그래서 성인(聖人)은 자연[天]에 비추어 본다. 자연에 비추어 보면 이것도 저것이고, 저것도 이것이다. 과연 저것과 이것의 구분이 있는 것인가?

- ① 이것과 저것의 분별이 상대적인 것에 불과함을 깨달아야 한다.
- ② 마음을 깨끗이 비워[心齋] 제물(齊物)의 경지에 도달해야 한다.
- ③ 사물이 아닌 도(道)의 관점에서 만물을 평등하게 인식해야 한다.
- ④ 성인이 되기 위해 인간의 본래적 특성인 인의(仁義)를 회복해야 한다.
- ⑤ 조용히 앉아서 현재의 세계를 잊고[坐忘] 무아(無我)의 경지에 들어가야 한다.

20. 사회사상가 갑, 을의 이상 사회에 대한 입장으로 옳은 것은?

갑: 유토피아에서는 사람들이 빈곤층으로 전락하여 거지가 되는 일은 없다. 모든 것이 공평하게 분배되기 때문이다. 사람들은 오직 6시간만 일함에도 온갖 물건들을 충분히 생산해 내고, 남은 시간에는 지적 활동이나 직업과 관련한 기술을 연구한다.

을: 공산 사회는 공동의 생산 수단으로 노동하면서 각자의 개별 노동력을 하나의 사회적 노동력으로 인식하는 자유인들의 결사체이다. 이 사회에서는 사적 소유가 폐지됨에 따라 계급과 계급의 대립이 완전히 파괴되고 종래의 노동 분업도 사라진다.

- ① 갑: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소유와 생산에서 평등이 이루어진다.
- ② 갑: 사회 구성원의 도덕성 타락 방지를 위해 여가 생활이 금지된다.
- ③ 을: 사회 구성원은 능력에 따라 일하고 업적에 따라 분배받는다.
- ④ 을: 자본가 계급과 노동자 계급이 협력하여 국가의 부가 증대된다.
- ⑤ 갑과 을: 사유 재산 획득을 위한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이 허용된다.

※ 확인 사항

-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(표기)했는지 확인하시오.